

20.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청원의 건 심사보고서

1. 제출과정

- 제출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2동 1336번지
태성맨션 106동 911호 박실경 외 29,306명
- 제출일자 : 2007년 1월 25일
- 소개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이동희 의원

2. 검토과정

- 회부일자 : 2007년 3월 30일
 - ※ 2007. 1. 25 건설환경위원회에 회부
 - 2007. 3. 30 본 위원회로 소관 위원회 변경
- 검토기간 : 2007년 3월 30일 ~ 2007년 4월 4일
 - ※ 제159회 임시회 범안로 특별위원회(2007. 4. 5)에서 대구시의 범안로 관련 사업분석 연구용역 완료 시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청원 심사 유보함.

3. 심사과정

- 대구광역시의회 제159회 임시회 중 제1차 특별위원회(2007. 4. 5) : 심사유보
- 대구광역시의회 제163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2007. 10. 31) : 특위 활동기간 연장
- 대구광역시의회 제165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2008. 1. 24) : 의견서 채택 및 본회의 부의 결정

4. 청원내용(요지)

- 수성구 범물 지역과 동구 안심지역을 연결하는 대구시 민자사업 유료도로인 범안로는 수성구 삼덕요금소와 고모요금소에서 각각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음.
- 지산범물택지개발 사업 시행 당시 지산·범물 입주민들이 234억원을 부담하였으며 이 도로건설부담금은 현재의 자산 가치로 700억원 이상에 달하는 금액이기에 범안로 총사업비 2,254억원에 비추어 볼 때 기여한 역할이 매우 크므로
- 이 지역 주민에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이중부담 행위로서 부당하므로 삼덕요금소의 폐지를 청원함.

5. 소개의견(요지)

- 범안로 개요
 - 범안 ~ 안심간 7.25km 구간, 총사업비 2,254억원 (민자 1,683, 시비 571)
 - 요금(승용차 기준) : 삼덕요금소 500원, 고모요금소 600원
 - 현재 통행료 수입부족에 따라 매년 60~80억원을 시비로 보전하고 있음
- 범안로는 2002년 개통이후 삼덕요금소와 고모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받고 있으며 민자업체가 2026년까지 24년간 요금을 징수할 예정이나,
 - 현재의 통행량이 계획통행량 대비 37%수준이어서 부족분에 따른 재정지원 보전금으로 매년 60~8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대구시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므로 유료도로는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함.
 - 시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비 전액을 우선 변제하고 매년 보전해야 할 금액으로 원리금을 상환해도 문제가 없을 것임
 - 삼덕요금소가 폐지되어도 고모요금소가 유지되기 때문에 대구시의 민자사업에 대한 의미는 유지될 수 있으며, 또한 고모요금소를 통한 징수액으로 범안로 유지보수비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이 지역 주민들이 92년과 93년의 택지개발을 통해 부담한 금액은 약 922억원이며, 93년도에 현금 기부한 234억원은 범물동에서 고산국도를 연결하는 도로건설용 목적기부였는데, 범안로가 바로 이 목적구간과 동일한 구간이며, 삼덕요금소 통행량의 80%정도를 이용하는 지산·범물 주민들이 이중 부담을 하고 있으므로 부당함
- 대구시의 4차 순환선 운영을 함에 있어 1개 구간 당 1개 인터체인지(요금소)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 경부고속도로 동대구 인터체인지로 나온 이용객은 2분도 안되어 범안로 고모요금소에서 요금을 낸 후 3분쯤 지나 삼덕요금소에서 다시 요금을 내고, 약 2분쯤 지나 달서구로 가는 새로운 민자 도로에서 요금을 내야 할 것임(약 10분간 3차례의 요금 징수).
- 대구월드컵 경기장과 대구시립미술관 등 문화도시 활성화 차원에서도 삼덕요금소는 폐지되어야 함.
- 유료도로의 경우 통상 우회할 수 있는 무료도로를 개설하여 운전자가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범안로의 경우 인근 농민들의 영농에 지장이 된다고 항의하자 도로를 막아서 일반차량은 통행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임.

6. 검토보고 요지(보고 : 건설환경 전문위원 하재열)

- 먼저, 청원인의 청원사유를 보면,
 - 범안로는 범물에서 안심간 7.25km 구간에 총사업비 2,254억원(민자 1,683, 시비 571)을 투입하여 5년간의 공사기간으로 2002년도에 개통된 유료도로로서,
 - 통행료는 2002. 9. 1부터 현재까지 승용차기준으로 살펴보면 삼덕요금소(안심쪽)에서 500원, 고모영업소(안심쪽)에서 600원을 각각 징수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24년간 징수할 예정임. 또한, 현재의 통행량이 계획통행량 대비 37% 수준이어서 부족분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 보전금 규모가 매년 60~80억원 정도가 되므로 대구시의 재정 압박요인을 제거하는 측면으로 보더라도 유료도로는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한다고 주장.
 - 시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비 전액을 우선 변제하고 매년 보전해야할 금액으로 원리금을 상환해도 문제가 없을 것임
 - 삼덕요금소가 폐지되어도 고모요금소가 유지되기 때문에 대구시의 민자사업에 대한 의미는 유지될 수 있으며, 또한 고모요금소를 통한 징수액으로 범안로 유지보수비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
 - 한편, 이 지역 주민들이 92년과 93년의 택지개발을 통해 부담한 금액은 약 922억원이며, 93년도에 현금 기부한 234억원은 범물동에서 고산국도를 연결하는 도로건설용 목적기부였는데, 범안로가 바로 이 목적구간과 동일한 구간이며, 삼덕요금소 통행량의 80%정도를 이용하는 지산·범물 주민들이 이중 부담을 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 대구시의 4차 순환선 운영을 함에 있어 1개 구간당 1개 인터체인지(요금소)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 경부고속도로 동대구 인터체인지로 나온 이용객은 2분도 안되어 범안로 고모요금소에서 요금을 낸 후 3분쯤 지나 삼덕요금소에서 다시 요금을 내고, 약 2분쯤 지나 달서구로 가는 새로운 민자 도로에서 요금을 내야 할 것임(약 10분간 3차례의 요금 징수).
 - 대구월드컵 경기장과 대구시립미술관 등 문화도시 활성화 차원에서도 삼덕요금소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
 - 유료도로의 경우 통상 우회할 수 있는 무료도로를 개설하여 운전자가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범안로의 경우, 인근 농민들의 영농에 지장이 된다고 항의하자 도로를 막아서 일반차량은 통행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함.

○ 다음, 범안로의 건설배경 등 전체적인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 본 민자도로는 '96년, '97년도에 지산, 범물, 시지등 대규모 택지개발과 월드컵 경기장의 각종 국제 대회(대륙간컵, 월드컵축구대회, 세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등)를 대비하여 연결도로망 구축이 시급하여 부득이 민자를 유치하여 조기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 사업개요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성구 범물동에서 동구 율하동까지 폭 35~50m, 길이 7,250m 규모로 2,254억원(민자 1,683 시비 571)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997년 10월 22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 대구동부순환도로(주)를 시행자로, 코오롱건설(주) 외 6개사가 시공사가 되어 추진하였음.
- 일정별 범안로의 추진과정은 다음과 같음.
 - 94. 8. 3 : 민자유치 촉진법 제정공포
 - 95. 5.20 : 대구광역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공포
 - 96. 2 : 제1회 민자유치 전략 세미나에 설명회개최
 - 96. 3.26 : 민자유치 도로사업 설명회 개최
 - 96. 7.10: 민자유치 시설사업기본계획(안) 대구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 96. 8. 8 : 민자유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쌍용컨소시엄, 코오롱컨소시엄, 2개컨소시엄 입찰참여

- '97. 4.12 :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 '97. 4. 21 : 실시협약 체결
- '97. 8. 7 : 민자유치 실시계획 승인
- '97. 10.22 : 공사착공
- '01. 5.15 : 범물~달구벌대로구간 개통(통행료징수:10. 5)
- '02. 3. 13 : 실시협약 변경(법개정: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02. 5. 23 : 달구벌대로~안심구간 개통(범물~안심간 전구간 개통)
- '02. 6. 27 : 관리운영계획 승인(전구간)
- '02. 6. 29 : 사용료 신고 및 승인(전구간)
- '02. 6. 27 : 관리운영계획 승인
- '02. 6. 29 : 사용료 신고 및 승인(전구간)
- '02. 8. 24 : 준공
- '02. 9. 1 : 전구간 개통 요금징수 실시
- '05. 6. 7 : 출자자 변경 및 실시협약서 변경
 - 출 자 자 : 코오롱건설(주)외 5개사 →맥쿼리대구동부순환도로 투자(주)
 - 실시협약 변경사항
 - ┌ 당초 :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을 계획교통량의 90%, 20년
 - └ 변경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을 계획교통량의 79.8%, 20년

○ 통행량 및 대구시의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 통행료 징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6조」에 의거 관리운영권을 설정하고, 「실시협약 제41조」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구간별, 차종별 요금은 다음과 같음.

구 분	통행료 (vat 포함)	영업소별 통행료	
		삼덕	고모
소 형	1,100원	500	600
대 형	1,500원	700	800

또한, 통행료의 징수기간은 「실시협약 제40조」규정에 의거 운영개시일로부터 24년간(2002. 9. 1 ~ 2026. 8. 31)징수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6년 기준으로 차량 통행량을 분석해 보면, 계획통행량(63,571대/일) 대비 1일 평균 19,235대로 약 30%의 통행량을 보이고 있는 실정임.

- 삼덕영업소(범물~달구벌대로간) : 1일평균 24,702대
- 고모영업소(달구벌대로~안심간) : 1일평균 13,767대

※ 구간별 개통 및 통행료징수 개시현황

- 범물~달구벌대로구간 (L=4.05km)
 - 개통일자 : 2001.5.15(대륙간컵 축구대회 대비 조기개통)
 - 통행료징수 : 2001.10.5
- 달구벌대로~안심국도구간 (L=3.20km)
 - 개통 일자 : 2002.5.23(월드컵축구대회 대비 조기개통)
 - 통행료징수 : 2002.9.1

- 지금까지 대구시의 재정지원 현황은 2003년도에 33억 6,000만원, 2004년도에 121억원 등 현재까지 총 281억원을 지원하였음.

(단위 : 억원)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비 고
281.34	33.6	121	42.94	83.80	

○ 본 청원과 관련하여 현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범안로 민자도로 사업분석 연구용역」 추진현황을 보면,

- 용역비 5천만원으로 범안로 구간 7.25km 전역에 대하여
- '07.2.15~2.26까지 사단법인 한국원가정보연구원에서 사업분석연구용역 원가계산을 이미 실시완료하였고,
- 범안로 및 주변 토지이용분석과 교통현황 조사분석, 장래 교통수요 및 통행료수입 예측, 교통현황 분석, 경제성 분석, 범안로 전구간 무료화 검토분석 및 대책 방안, 삼덕요금소구간 무료화 검토 및 대책방안 등을 주요 과업내용으로 포함하여, 4월중에 착수하여 금년 10월경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

- 이상과 같이 본 청원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 본 청원인의 요구내용인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를 포함한 범안로 건설과 관련하여 건설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제반 문제점, 시의 재정지원현황, 통행량 조사, 현재의 운영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재조사코자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중에 있을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본 청원사항과 관련한 「범안로 민자도로 사업분석 연구용역」을 현재 시행중에 있음.
 - 청원의 심사는 「대구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6조4항」에 의거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본 건 청원은 대구시 용역의 결과분석과 아울러 본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고 위원회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정리되기까지는 현실적으로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입장표명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짐.

7. 질의·답변 요지

- 대구광역시의회 제159회 임시회 특별위원회(2007. 4. 5) : 없음
- 대구광역시의회 제163회 임시회 폐회기간중 제1차 특별위원회(2007. 10. 31) : 없음
- 대구광역시의회 제165회 임시회 폐회기간중 제1차 특별위원회(2008. 1. 24)

질	의	답	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청원과 관련하여 삼덕요금소의 무료화 보다는 전 구간 매입이 선행되어야 하겠음.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매입가능한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대구시에서는 재정 문제로 매입은 어렵고 매년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않고 있음. ○ 삼덕요금소 폐지청원의 건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돔 야구장, 시립미술관 등 접근성 문제와 연계해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그 조사는 시에서 의뢰한 것인지? 아니면 신문사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 2011년 육상대회를 대비하여 운동장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열로에서 운동장까지 도로를 개설하여 해소할 예정임. 참고로 최근 영남일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시민들은 무료화 20%, 기존 유지 80% 정도의 의견을 보이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 ○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임. 		

8. 토론요지

- 대구광역시의회 제159회 임시회 중 제1차 특별위원회(2007. 4. 5)
 -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청원의 건」과 관련 본 청원에 대하여 현재 대구시에서 용역을 추진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본 청원에 대하여 특위활동 종료시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하고 심사를 유보함.
- 대구광역시의회 제163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특별위원회(2007. 10. 31) : 없음
- 대구광역시의회 제165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특별위원회(2008. 1. 24)
 -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청원의 건」에 대하여 그동안 심도 있는 논의결과 범안로 전 구간 매입 및 삼덕요금소 구간 무료화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으므로
 -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바, 위의 결론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함.

9. 심사결과

○ 의견서 채택 및 본회의 부의(재석위원 전원 찬성)

※ 의견서 : 붙임 참조

<의견서>

-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청원의 건」은 대구시 민자사업 유료도로인 범안로의 수성구 삼덕요금소와 고모요금소에서 각각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산범물택지개발 사업 시행 당시 지산·범물 입주민들이 234억원을 부담하였고, 이 도로건설부담금은 현재의 자산 가치로 700억원 이상에 달하는 금액이기에 범안로 총사업비 2,254억원에 비추어 볼 때 기여한 역할이 매우 크므로 이 지역 주민에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이중부담을 지우는 행위로서 부당하므로 삼덕요금소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임.
-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간 본 청원의 건에 앞서 범안로의 합리적 운영방안 모색을 위해 조사특위를 구성(2007. 1. 19)·운영한 결과 사업비 2,254억원(시비571억원, 민자1,683억원)을 투자하여 '02년 8월 개통한 범안로 민자도로의 통행량이 당초 대구시가 추정한 계획량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매년 150억원 이상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어 20년간 재정지원 규모가 5,151억원에 달하는 등 행정의 신뢰 실추 및 대구시의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이는 도로건설 과정에서 계획통행량 추정, 협약서 변경 등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향후 범안로와 관련하여 막대한 재정지출(2007년 이후 매년 152억~511억원)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 위원회에서 범안로를 현재의 재정지원 방식 보다는 매입하는 방법이 유리하다는 재정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매입가능 방안이 있다는 점, 협약서상 운영권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 운영회사에서 매수 협의 의사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대구시에서 범안로 전 구간을 매입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대구시에서는 범안로 관련 분석용역 결과와 예산사정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청원의 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범안로 전 구간 매입 및 삼덕요금소 구간 무료화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하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함.